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백령도! 1980년대 중반, 나는 이곳에서 갖 소외의 군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엔 인천에서 여객선을 타고 10~11시간이 걸렸다. 내륙에서 나고 자란 내게 섬 생활은 참으로 답답했다. 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바다였다. 육지로부터의 거리감이 더욱 고립감과 그리움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기실 육지는 가까웠다. 북쪽으로 장산곶이 바라다보이고, 구호로 써놓은 큰 글씨가 선명했다. 그 가까운 육지는 바로 '적지(敵地)'였다.

살밭만 군사적 대치상황을 접어두면, 백령도는 아주 멋진 곳이었다. 사곶 모래사장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천연 활주로다. 모래사장 위를 지프차로 질주하기도, 그 위에서 병사들과 소프트볼이나 축구경기를 하기도 했다. 휴일엔 절경인 두 무진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통일이 되면 이곳은 끝내주는 관광지가 될 텐데" 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백령도 인근은 심청 이야기의 무대였다. '연꽃'이란 이름의 마을이 있었는데, 가끔 마을 식당에 전화를 한다. "심청한 회 없어요? 들어오거든 연락 좀 주세요." 식당주인이 복한 말투로 답한다. "알았스

구레." 까나리가 특산물이고 해삼, 전복 등 많은 해산물이 나는데, 덕분에 항상 먹을 수 없었다. 군사적 이유로 여자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와 관련을 맺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객선 운행 여부를 결정할 날씨는 일

상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백령도에서 나는 1년을 근무했다. 내 후임으로 후배 장교들이 연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그 후임자는 백령도 산봉우리에서 눈앞의 남쪽 바다를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전지도 아니고 교전도 없었는데, 어떻게 46명의 젊은 장병들과 함께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걸까?

이미 보름이 지났건만 마치 진실게임을 하듯 오리무중이다. 내가 아는 우리 군의 정보능력이라면, 지금쯤 몇 가지 결정적

정보를 취합하여 그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련만. 항간에는 저마다 이념과 선입관에 따라 나름의 추측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말은 예단을 배제하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자세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의 모습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눈치를 봐가면서 대충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생기게 한다. 진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나 알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그럴 듯하다. 최근 2~3년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몇몇 사건처럼 시간을 끌다가 끝내 속 시원한 결말을 보지 못할 것이

대한 변명의 의미도 있었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결국 환자복이 위기에 처한 군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았는지.

백령도에서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과의 기투합하는 게 나이었다. 저녁에 마을에서 술로 회포를 풀고 파하여 돌아올 땐 자욱한 바다안개가 드리우기도 했다. 속소에 가까워지면 길을 밝혀주는 보안등과 초병의 경례소리가 반가웠다. "반장님, 내일 아침에도 배가 안 뜬답니다." 그래, 엄계장 출장도 김 상병 휴가도 미뤄지겠군. 모래는 뜨졌지.

인터넷에선 안보장관회의에 대해 '군면제자들의 지하병커회'라며 야유를 보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동안 면제를 제한한 데

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세상을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사고도 생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다. 항간에 떠도는 어떤 원인이 사실이라도 이미 무력함이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고 책임지는 자세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분위기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인터넷에선 안보장관회의에 대해 '군면제자들의 지하병커회'라며 야유를 보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동안 면제를 제한한 데

대한 변명의 의미도 있었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결국 환자복이 위기에 처한 군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았는지.

백령도에서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과의 기투합하는 게 나이었다. 저녁에 마을에서 술로 회포를 풀고 파하여 돌아올 땐 자욱한 바다안개가 드리우기도 했다. 속소에 가까워지면 길을 밝혀주는 보안등과 초병의 경례소리가 반가웠다. "반장님, 내일 아침에도 배가 안 뜬답니다." 그래, 엄계장 출장도 김 상병 휴가도 미뤄지겠군. 모래는 뜨졌지.

인터넷에선 안보장관회의에 대해 '군면제자들의 지하병커회'라며 야유를 보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동안 면제를 제한한 데

대한 변명의 의미도 있었을 텐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결국 환자복이 위기에 처한 군의 모습을 상징하지 않았는지.

백령도에서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과의 기투합하는 게 나이었다. 저녁에 마을에서 술로 회포를 풀고 파하여 돌아올 땐 자욱한 바다안개가 드리우기도 했다. 속소에 가까워지면 길을 밝혀주는 보안등과 초병의 경례소리가 반가웠다. "반장님, 내일 아침에도 배가 안 뜬답니다." 그래, 엄계장 출장도 김 상병 휴가도 미뤄지겠군. 모래는 뜨졌지.

인터넷에선 안보장관회의에 대해 '군면제자들의 지하병커회'라며 야유를 보내고 있다. 생존 장병들이 환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그동안 면제를 제한한 데

시설

영호남 대학생 교류 더 확대·지속돼야

동서화합을 위해 시작한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관심 부족으로 지원이 줄어들면서 참여학생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대학생들의 교류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타파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99년 전남대와 경북대가 처음 시작한 대학생 교류는 정부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후 울산대와 부산대가 합류하고 2003년부터는 양 지역 사회단체가 후원을 나서면서 정착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2002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영호남 대학생 교류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전남대와 경북대의 경우 시행 첫해인 1999년 240명에 이르던 참가 정원이 정부가 지원을 중단한 2002년 90명, 2005년 4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방정부로 이력되어지는 지역감정은 영호남 간의 갈등이 그 단초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군사정권의 영호남 차별정책과 그에 따른 오해와 편견이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따라서 양 지역 간의 공동체적 경험과 소통의 기회는 동서화합에 필수적이다.

물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양 지역 간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기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대 지역 문화·역사·생활의 체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대학생 교류는 확대 지속돼야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역감정 해소는 구호나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역감정이란 명어를 지녔는 후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 방치만 할 것인가

쌀값 하락세가 심각하다. 2009년산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지난해 11월 14만2천292원(80kg 한 가마 기준)이던 출하가격이 올 1월에 14만855원, 3월에는 13만9천91원으로 5개월 사이 3천 200원이나 폭락했다. 그러다 보니 3월의 쌀값은 최근 5년래 최저점을 찍었던 2006년 4월의 13만7천512원에 근접한 상황이다.

통상 2월부터는 새로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데도 쌀값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로서는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쌀값 하락 현상이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는 단순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작가를 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해 갖고 있는 재고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영호남 간의 갈등이 그 단초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군사정권의 영호남 차별정책과 그에 따른 오해와 편견이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따라서 양 지역 간의 공동체적 경험과 소통의 기회는 동서화합에 필수적이다.

물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양 지역 간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기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대 지역 문화·역사·생활의 체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대학생 교류는 확대 지속돼야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역감정 해소는 구호나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역감정이란 명어를 지녔는 후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로 이력되어지는 지역감정은 영호남 간의 갈등이 그 단초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군사정권의 영호남 차별정책과 그에 따른 오해와 편견이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따라서 양 지역 간의 공동체적 경험과 소통의 기회는 동서화합에 필수적이다.

물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양 지역 간 프로그램은 수없이 많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기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상대 지역 문화·역사·생활의 체험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대학생 교류는 확대 지속돼야 마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역감정 해소는 구호나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역감정이란 명어를 지녔는 후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영호남 대학생 교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상급식은 어릴때 부터 쌀 맛을 길러 쌀 소비는 점점 주는데 쌀의 생산은 그만큼 줄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4.0kg으로 전년 대비 1.8kg 감소했으며, 지난 1984년의 130.1kg과 비교하면 무려 43%나 줄었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 농사 대신 일반 작물을 심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정 기조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99%를 수입하는 밀가루의 일부라도 쌀가루로 전환한다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다. 쌀곡수와 쌀라면 등이 쌀쌀거리처럼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분기술 개발 및 지원 등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NGO 칼럼

오종환



요즘 젊은이들 중에 선풍하는 작중 중의 하나가 연예인이다. 가수, 탭댄스, 개그맨, 영화배우 등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TV방송을 통해 국민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중과 중심의 방송 시장에서 소수의 연예인들만이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중문화 시장이 서울 중심으로 재편되어

차된 방송을 만들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오락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방송을 공유해서 본다면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어린들이 부르는 동요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가 있다. 우리는 TV에 나오는 것을 비롯한 행복으로 느껴져왔다. 지역 케이블 방송은 그러한 우리 시민들

지역 케이블 방송과 문화도시

있다는 것이다. 방송의 배경도 서울, 방송 출연자들도 서울, 제작자들도 서울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편편한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다양한 지역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예인을 꿈꾸는 많은 지방의 연예인 지방방송은 서울로 몰려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그나마 방송을 타고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나타가 바늘구멍 뚫기'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할 연예인 직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고 한다. 마음 같아서는 서울에 있는 공중과 방송국 하나가 광주로 온다면 지역의 대중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도시를 꿈꾸는 광주에서 지역 케이블 방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 방송은 주민들과 밀

의 문화 창조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의 한계는 특정 프로그램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이것저것 돌리다가 눈에 띄어서 채널을 멈춰서 본다는 것이다.

물론 반복해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노출빈도는 높지만, 시청자들의 시청 집중도가 낮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특정 방송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나 메일로 전송해 주고, 홍보전단지나 포스터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나 문화도시추진단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나, 배우 등 지역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스타로 성장하길 바란다. 지역 케이블방송 사랑운동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를 창조하고, 소비하는 대중문화를 육성시켜 더욱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소장》

진료 예약금 환불 불편...전화로도 가능케 해야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예약 환자가 많아서 한 달 정도 뒤에 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예약만 잡아놓으려고 했더니 진료 예약금을 내지 않으면 예약을 잡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는 수 없이 내시경과 CT촬영비까지 해서 30만원 정도의 돈을 미리 선불로 냈다.

진료예약금 선불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반 강제적인 규정인데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병원에 못 가게 되면 나중에 그걸 돌려

받기도 무척 번거롭다. 즉 본인이나 다른 환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족이나 제3자가 되돌려받기도 어렵고 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환자들은 환불받기를 포기하기 일쑤다.

앞으로 병원에서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진료예약번호, 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까지 제시한다면 진료예약비 정도는 전화로도 환불조치를 해주게 맞다고 본다.

▲이수연·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기고

황해성



지금 선진국들은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과거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미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첨단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신대체에너지 경제를 통해 5백만 명의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 목적의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농업연구 아젠다를 설정했다. 주곡의 안전생산,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첨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기능성 의약품, 신물질소재, 농업용 로봇,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한식 세계화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 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세계 최초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인공고막 개발, 갈골검검을 이용한 인공피부, 채소 자동검목 로봇, 장기가식용 형질전환돼지(지노), 지열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과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등의 세계적 명품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의 이 같은 기술개발로 지난해 약 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농업의 무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진국 진입은 농업이 얼마나 연관 산업을 뒷받침하는가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박사가 말한 것처럼 후진국이 공업발전 을 통해 중진국이 될 수는 있어도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과 더불어 미래 녹색성장 중심산업인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 니주배시협장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